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 연 주(서울대 박사과정) · 이 기 영(서울대 교수) · 최 현 자(서울대 교수)

본 연구는 가용시간론적 관점과 젠더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객관적 시간활용 중 여가시간에 초점을 두고 주관적 시간경험인 시간압박감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젠더론적 관점에서 남녀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20세이상 취업남녀의 2일간 시간일지(N=3,150)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압박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여가시간과 성역할 태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남녀 각각 순서형 로짓(Ordinal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시간 사용은 성역할 태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보다는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시간압박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은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경우에 비해 보수적일 경우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의 시간압박감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남녀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성은 성역할 태도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만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에 비해 보수적인 집단일 경우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여가시간의 증가가 시간압박감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간압박감을 경험하는 과정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직업관련 활동, 소득 등 제도적인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유급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시간이나 연령,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가계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개인적 차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남녀 모두가 취업한 경우에도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온전히 직업역할에 치중되어 있고, 여성은 직업역할과 가정생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여성은 양쪽 영역에서 시간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성역할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단순히 여가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대다수(조사대상자의 80%)가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여가시간사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가의 질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